

20. 마카베오(상,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진출하여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 33살에 요절하고 그의 제국은 부하 장군들에 의해 4개의 독립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이중 이집트를 관할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바빌로니아를 관할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를 사이에 두고 다툽니다. 기원전 323년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먼저 약120년 동안 유다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유다에 자치권을 주며 매우 관대하게 통치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198년부터 약 30년간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했는데 헬라 문화로 개화시키려고 매우 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는 가장 악랄하게 유대교를 탄압한 사람입니다. 성전 출입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책을 전부 불태우며 박해합니다.

이런 종교탄압에 대항하여 마타티아스 사제는 그의 다섯 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BC167) 마타티아스가 1년 만에 죽자 가장 용맹하던 셋째 아들 유다가 주도하여 대항을 계속해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여 봉헌합니다. 이것이 하누카라 불리는 봉헌절 축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장에서 ‘마카베오’라는 ‘쇠망치’를 잘 돌려서 그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전사하자 막내인 요나탄이 지휘권을 넘겨받았고 또 대사제가 되었습니다. 외교 관계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던 그도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포로로 잡혀 죽자 2남이던 시몬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정치적 독립을 얻어 통치권과 대사제직을 겸하는 때부터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되는데(BC142), 하스모니아는 아버지 마타티아스의 증조부입니다. 이 왕조는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지배될 때까지 약 79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마카베오 상·하권은 사건을 순서대로 다룬 책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권에서는 항쟁의 배경이 되는 헬레화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다른 형제에 대한 언급 없이 유다 마카베오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순교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신심 깊은 율법 학자 엘아자르는 거짓으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절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고,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두 순교합니다.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통교를 가르치며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Tip

요나탄이 대사제가 되자 평신도 반대자가 바리사이, 일부 사제 반대자가 에세네파, 다수 사제의 동조자가 사두가이파로 분열되었다.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왕(356-323)은 알렉산더 제국의 다음 후계자를 딱히 정해놓지 않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 당시 후계자로 "가장 강한 자"를 지목했다. 그 결과 이복동생인 필리포스 3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기는 했으나 있으나마나한 존재였고 휘하 장군들(디아도코이) 사이에 죽고 죽이는 내전 상태가 40년간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는데, 당시 다섯 세력으로 분할되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중부의 안티고노스 왕조

마케도니아의 총독이었던 카산드로스 왕조(안티파트로스 왕조)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안티오키아 중심의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트라키아 지역의 리시마코스 왕조-이후 페르가몬 중심의 아나톨리아 아탈로스 왕조

카산드로스는 BC 297년 수종으로 사망하였고 그의 왕조는 몇 년 후 안티고노스 왕조에 흡수되었고, 안티고노스 왕조는 BC 168년 피드나 전투이후 로마에 흡수되었다.

리시마코스 왕조는 BC 281년 리시마코스가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와 싸워 패하자 이내 왕조는 망했고 리시마코스의 부하 필레타리우스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페르가몬 왕국을 빼앗았다. 페르가몬은 BC 133년 마지막 왕 아탈로스 3세가 죽으면서 왕국을 로마 공화국에 헌납하여 아시아 속주에 편입되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 제국의 아시아쪽 영토를 거의 모두 차지했으나 2세기 말에는 서쪽은 로마 동쪽은 파르티아에게 영토를 빼앗겨 시리아 소국으로 전락하였고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여 로마제국의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한때 키레나이카, 동부 리비아, 누비아, 팔레스타인, 아나톨리아 해안 전역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동부 지중해의 지배자였으나 라이벌인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잦은 전쟁, 소수 이민족 특권 계급이 지배하는 기형적 지배구조 때문에 군사력이 급속히 쇠약해져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BC 30년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에게 합병당했다.